

신경계 질환 진료비 변화 추이

— (2007년 1월~2008년 12월) —

김동환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심사평가연구실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경계 질환은 고령화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신경계 질환은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의 71%가 50세 이상 장년 및 노년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신경계 질환이 더욱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방지대책 등이 요구된다.

들어가며

-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경계 질환은 고령화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신경계 질환은 65세 이상의 인구에서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에 따른 급격한 환경적인 변화들이 신경계 질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따라서 본 호에서는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를 알아보고자함.
-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 변화율을 분석하였음.
 - 대상자료 :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건강보험 신경계 질환 진료비 (입원, 외래)로 심사개시일 기준 심사 결정된 자료
 - 질병분류기준 : 한국표준 질병분류코드 3단 분류에 기초하여 신경계 질환(질병코드 G00~G99)의 진료비를 산출

1. 신경계 질환의 총진료비 분석

- 2008년 신경계 질환 총진료비는 6,758억원이며, 입원 4,199억원, 외래는 2,559억원임 (표1 참조).
 - 신경계 질환의 총진료비는 200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 35조 366억원의 1.9%에 해당됨.
 - 신경계 질환의 총진료비는 2007년도 대비 24.1% 증가하였음. 입원은 35.3%, 외래는 9.2% 증가함.

-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이 8.6%이고 입원은 12.0%, 외래는 6.8%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신경계 질환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신경계 질환의 입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 전체 증가율보다 약 3배 더 높았으며, 외래 진료비의 경우에도 신경계질환이 2.4% 더 높았음.
- 신경계 질환의 입원 및 내원일수는 2007년 대비 전체 13.5% 증가하였으며, 입원은 40.3%, 외래는 3.3% 증가함.

표 1. 신경계 질환의 총진료비 및 입(내)원일수

	총진료비(억원)			입(내)원일수(천일)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전체	5,447	6,758	24.1	10,645	12,083	13.5
입원	3,103	4,199	35.3	2,936	4,120	40.3
외래	2,344	2,559	9.2	7,709	7,963	3.3

주 : 심사 개시일 기준 건강보험 심사 결정된 자료임

2. 신경계 질환 진료비의 요양기관 종별분석

- 입원 진료비는 2007년도 대비 종합전문병원 13.0%, 종합병원 21.2%, 병원 60.1%, 요양병원이 7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2 참조).
 - 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및 입원일수가 크게 늘어남.
- 외래 진료비는 종합전문병원 10.6%, 종합병원 10.7%, 병원 24.8%, 요양병원 2.5%, 의원 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기관은 37.0% 감소함(표2 참조).
 - 외래 내원일수를 살펴보면, 의원의 내원일수는 2007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보건기관은 3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 증가액은 1,311억원이었으며, 입원은 1,096억원, 외래는 215억원임(표1 참조).
 - 입원진료비 증가액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은 병원(28%)과 요양병원(44%)이 72%를 차지했으며(그림1-A), 증가한 입원일수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은 병원(31%)과 요양병원(55%)이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그림1-B).
 - 외래 진료비 증가액의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은 종합전문병원(35%)과 종합병원(32%)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그림1-C), 외래내원일수 증가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은 종합전문병원 14%, 종합병원 26%, 병원 37%, 의원 19%로 나타남(그림1-D).

표 2. 신경계 질환의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및 내원일수

	종별	총진료비(억원)			내원일수(천일)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전체	종합전문병원	1,672	1,873	12.0	1,534	1,618	5.5
	종합병원	1,559	1,820	16.8	2,199	2,391	8.7
	병원	672	1,017	51.4	1,213	1,685	38.9
	요양병원	664	1,141	71.8	1,084	1,761	62.4
	의원	868	900	3.6	4,471	4,528	1.3
	보건기관	12	7	-37.0	143	98	-30.9
입원	종합전문병원	960	1,084	13.0	468	511	9.1
	종합병원	905	1,096	21.2	688	802	16.6
	병원	505	809	60.1	629	991	57.6
	요양병원	627	1,103	75.9	987	1,652	67.4
	의원	106	106	-0.2	165	164	-0.2
외래	종합전문병원	713	788	10.6	1,066	1,107	3.9
	종합병원	654	724	10.7	1,511	1,590	5.2
	병원	166	207	24.8	584	694	18.8
	요양병원	37	38	2.5	97	109	11.7
	의원	762	794	4.2	4,307	4,364	1.3
	보건기관	12	7	-37.0	143	98	-30.9

주 : 1) 심사 개시일 기준 건강보험 심사 결정된 자료임.
 2)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하고, 의원은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한의원을 포함하며,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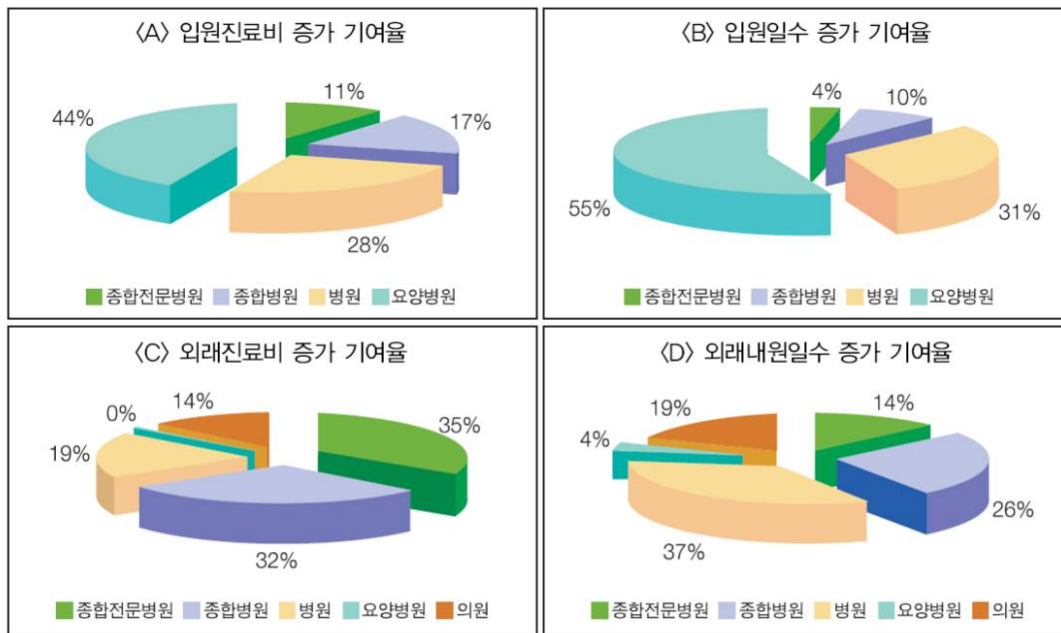


그림 1. 신경계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및 내원일수 증가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¹⁾

1) 요양기관 종별 기여율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증가액에 대한 종별 점유율을 나타냄.

3. 신경계 질환의 연령별 입원진료비 분석

- 2008년 신경계 질환의 연령별 입원진료비는 0~4세는 244억원, 5~19세는 285억원, 20~34세는 262억원, 35~49세는 533억원, 50~64세는 1,006억원, 65~79세는 1,428억원, 80세 이상은 441억원임(표3 참조).
- 2007년 대비 2008년도 신경계 질환 연령별 입원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0~4세는 39.4%, 5~19세는 60.9%, 20~34세 18.0%, 35~49세 23.5%, 50~64세 26.9%, 65~79세 40.3%, 80세 이상은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신경계 질환 입원진료비 증가액 중 71%가 50세 이상 장년 및 노년층에서 발생하였으며, 16.1%는 20세 미만에서 발생함(그림2 참조).

표 3. 신경계 질환의 입원진료비 및 입원일수

연령별	입원진료비 (억원)			입원일수 (천일)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0~4세	175	244	39.4	121	184	52.3
5~19세	177	285	60.9	108	196	81.3
20~34세	222	262	18.0	161	191	18.9
35~49세	431	533	23.5	358	447	24.7
50~64세	793	1,006	26.9	687	905	31.8
65~79세	1,018	1,428	40.3	1,087	1,561	43.5
80세이상	287	441	53.9	415	637	53.6
계	3,103	4,199	35.3	2,936	4,120	40.3

※ 심사 개시일 기준 건강보험 심사 결정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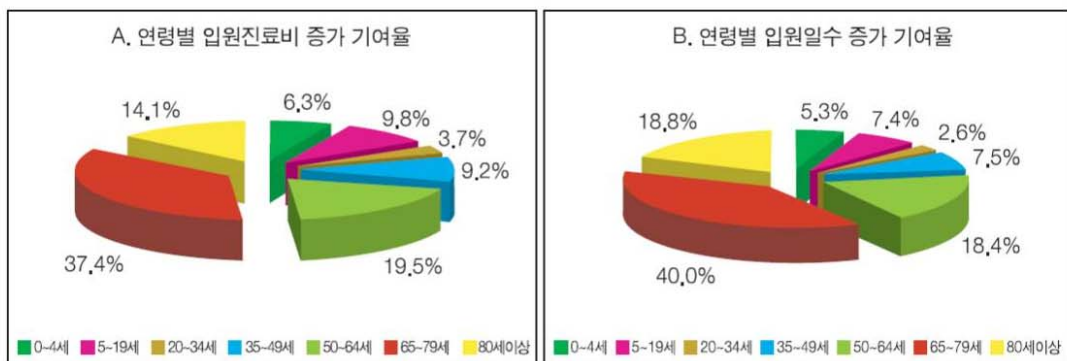


그림 2.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신경계 질환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및 입원일수 증가에 대한 연령별 기여율

□ 0~4세와 5~19세 연령층에서 2007년 대비 2008년 월별 누적 입원일수의 증가율이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급증한 것으로 관찰됨(그림3 참조).

- 20세 미만에서 입원일수의 증가세가 관찰되어 이 연령층에 대해 종별 분석을 함. 0~4세는 7월부터 9월까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일수의 증가세가 관찰됨. 그리고 5~19세의 경우에는 모든 기관에서 증가세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종합병원의 입원일수가 급등함(그림4 참조).
- 0~19세에서 2008년 입원일수 기준 상위 10개 상병 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뇌성마비(G80), 대마비 및 사지마비(G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의 입원일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표4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8년 5월 이후 20세 미만의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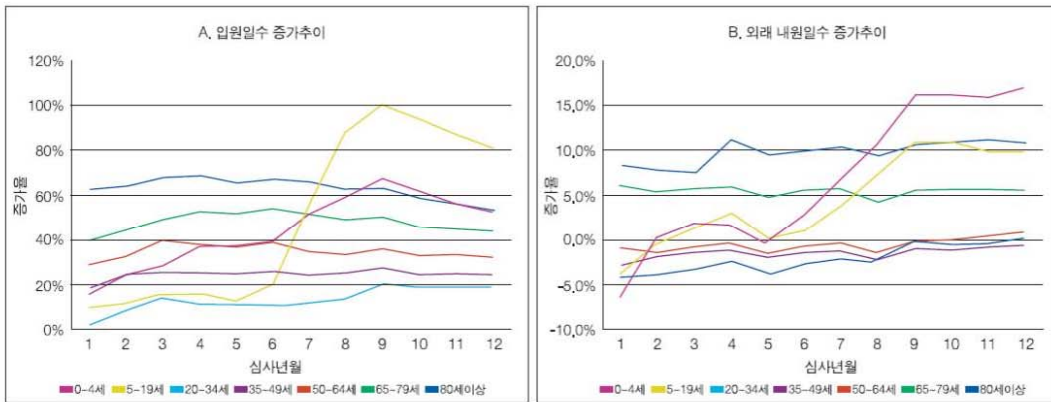


그림 3. 신경계 질환의 2007년 대비 2008년 월별 누적 입(내)원일수의 연령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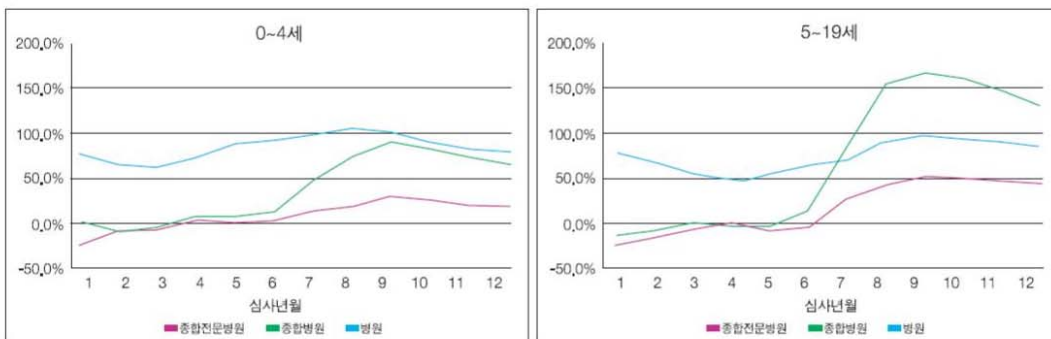



그림 4. 신경계 질환의 2007년 대비 2008년 0~4세와 5~19세의 월별 누적 입원일수의 요양기관 종별 증가율 추이

표 4. 0~19세 신경계 질환 입원일수 기준 상위 10개 순위

순위	상병명 (코드명)	입원진료비 (억원)			입원일수 (천일)		
		2007	2008	증가율(%)	2007	2008	증가율(%)
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45.4	179.8	296.4	34.1	143.7	321.4
2	뇌성마비(G80)	87.6	108.5	23.8	72.3	99.4	37.4
3	간질(G40)	85.7	89.7	4.6	46.2	44.5	-3.7
4	대마비 및 사지마비(G82)	10.2	13.6	33.3	10.0	13.7	37.1
5	뇌의 기타 장애(G93)	18.4	23.9	29.4	9.3	10.2	9.8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	8.5	12.7	50.2	5.7	9.4	63.7
7	간질 지속상태(G41)	19.6	18.7	-4.6	8.5	8.4	-0.1
8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11.5	11.9	3.3	5.8	6.8	17.5
9	편마비(G81)	5.2	5.8	10.8	4.7	5.1	7.1
10	수두증(G91)	9.4	11.3	19.6	4.2	5.1	21.8

나가며

- 2008년도 신경계 질환 총진료비는 6,758억원으로 2007년도 대비 24.1% 증가함.
 - 특히 입원진료비의 증가율이 35.3%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전체 신경계질환 진료비 증가액의 84%를 차지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가율이 8.6%이고 입원 12.0%, 외래 6.8%임을 고려하면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 증가율은 높게 나타났음.
 - 입원진료비 증가액에 대한 기여율은 병원(28%)과 요양병원(44%)으로 나타났으며, 증가된 입원일수의 경우 병원과 요양병원이 전체의 86%를 차지함.
 - 외래진료비 증가액에 대한 기여율은 종합전문병원(35%)과 종합병원(32%)이 전체의 67%를 차지함.
 - 의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입원일수는 -0.2%로 나타났고, 외래진료비와 내원일수는 각각 4.2%, 1.3%로 다소 증가했으나, 보건기관 외래진료비는 -37.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신경계 질환의 진료비의 71%가 50세 이상 장년 및 노년층에서 발생함.
-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20세 미만의 연령층의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세 미만 연령층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G03), 뇌성마비(G80), 대마비 및 사지마비(G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G00)의 입원일수의 증가가 특징임.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8년 22주차(5.25~31일) 2008년 무균성 뇌수막염²⁾ 환자의 발생이 전년도인 2007년과 2008년 이전 5년간의 평균 발생을 훨씬 초과하는 유행을 나타내고 있음을 감지하고 보도자료(2008.6.17 배포)를 통해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 우려에 따른 주의당부”를 실시한 바 있음.
- 본 호의 신경계 질환 20세 미만의 진료비 분석결과는 2008년 무균성 뇌수막염 유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무균성 뇌수막염은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188명의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아전염병감시체계와 223개 학교 보건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전염병감시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발생 추이를 관찰하고 있음(질병관리본부).

※ 본 호의 진료경향 원고는 동일한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행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의 진료경향코너에도 요약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